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역동경제 평창올림픽

2017년 7월 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7. 4.(화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재준 과장 (044-203-4080)	담 당 자	송상현 사무관 (044-203-4086)

'17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17. 7. 4 (화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 및 코트라(KOTRA)의 외국인투자통계를 바탕으로 **2017년도 상반기**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

○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6월 30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**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**함

○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분기 발표**되며,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**'17년 10월 초순경 발표예정**

'17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신고 96.0억 달러[△9.1%], 도착 49.6억 달러[△4.4%] -

1. 종합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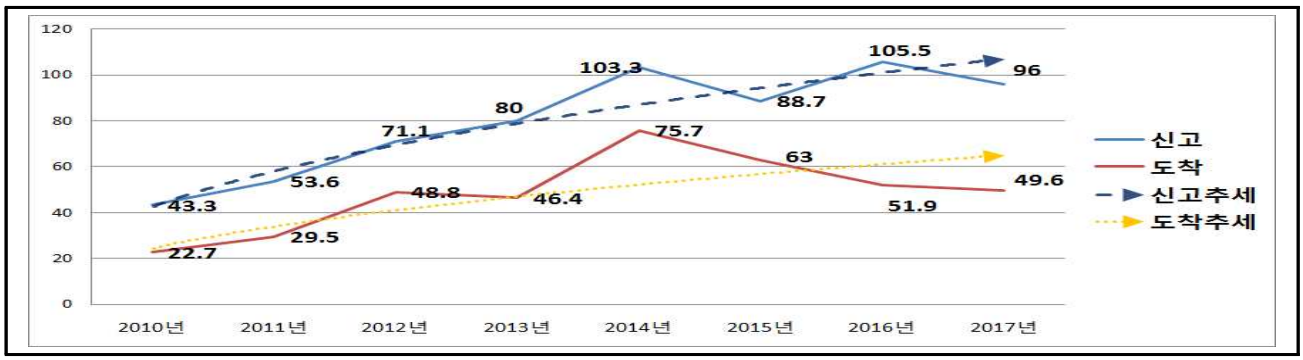
□ '17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**9.1% 감소**한 **96.0억 달러**, 도착기준으로는 **4.4% 감소**한 **49.6억 달러**를 기록

□ 이러한 실적은 미국의 2차례 금리인상, 신보호무역주의, 브렉시트 협상, 중국의 외환통제 강화 등 **세계경제의 불확실성**이 **고조**되고,

○ 특히, **중국, 일본 등 아시아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가 크게** 위축되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**장기적인 상승추세를**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

* '17.1Q IFDI : 중국 338억 달러(△4.5%), 일본 3,865억엔(△67.9%)

【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(단위 : 억불) 】



2. 국가별 동향

1 미국 (신고 24.5억 달러 +35.0%, 도착 6.0억 달러 △7.8%)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10.6억 달러 (+36.2%), 서비스 13.9억 달러 (+34.1%)

○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('17.4월), 금리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**1분기 감소세** (△33.5%)에서 벗어나 **큰 폭의 증가세** 시현 (2분기 +64.7%)

○ 업종별로는 **제조업(+36.2%)과 서비스업(+34.1%) 모두 고른 증가세**를 보인 가운데, 특히 제조업은 화공(+136%), 자동차(+3.4%) 등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**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최초로 10억 달러를 초과**

2 유럽연합(EU) (신고 22.2억 달러 △47.3%, 도착 14.9억 달러 △34.0%)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: 제조 9.2억 달러 (+228.5%), 서비스 12.5억 달러 (△65.5%)

○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, 유로존 양적완화(QE) 축소 논의 등으로 **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**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47.3% 감소

○ 특히, 지난해에 비해 **1억 달러 이상 대형 인수합병(M&A)형 투자**가 크게 감소한 것이 유럽연합(EU)**발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**

* 유럽연합 발(發) 1억 이상 인수합병(M&A) 투자: ('16.상) 20억 달러 → ('17. 상) 2.94억 달러 (△85.3%)

3 **중화권 (신고 28.7억 달러 +0.3%, 도착 15.9억 달러 +15.6%)**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2.6억불 (△73.0%), 서비스 25.9억불 (+37.6%)

○ 홍콩·싱가폴[1] 등 **중국 外 국가**를 중심으로, 금융·보험, 부동산 개발 등 **서비스부문[2]의** 투자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

1) 중화권 투자 증감율(신고) : ('16.3Q) △36.0% → (4Q) △7.1% → ('17.上) +0.3%
- 홍콩: 11.5억 달러(+3.9%), 싱가폴 : 11.9억불(+38.4%)
2) 금융·보험 10.2억 달러(+166%), 음식·숙박 2.8억 달러(+96.3%)

○ 다만, 중국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한 **외환 송금 규제** 및 **해외직접투자 심사기준 강화** 등의 조치로 투자 감소

*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및 증감율 : ('16.11월) 157억 달러(+76%) → (12월) 84억 달러 (△39%) → ('17.2월) 57억 달러(△68%) → ('17.4月) 58억 달러(△71%) (중국 상무부)

4 **일본 (신고 8.2억 달러 +18.3%, 도착 5.7억 달러 +33.4%)**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3.3억불 (△30.6%), 서비스 4.8억불 (+126.6%)

○ 지난 1분기에 '15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**2분기에도 증가세**를 이어가면서 **일본발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본격 회복세 진입**

* 일본 투자 증감율(신고) : ('16.1Q) △44.3% → (4Q) △23.5% → ('17.1Q) +153% → ('17.上) +18.3%

○ 제조업은 **감소**했으나 서비스업은 **성장세**를 보이고 있고, 특히 **핀테크**(간편·모바일 결제)·콘텐츠(게임) 등 **4차 산업혁명 분야**를 **중심**으로 **높은 증가세**

3. 업종별 동향

□ **제조업**은 전년동기 대비 0.5% 감소한 28.4억 달러를 기록

○ **주력산업**에 대한 투자가 **제조업 부문 외국인투자의 60%이상**을 차지하는 가운데,

- 특히, **화공·의약·기계장비** 분야 **투자가 높은 증가세**를 시현

* 화공 7.1억불(+12.6%), 의약 3.4억불(+816%), 기계·장비 2.2억불(+50.2%)

□ **서비스업**은 전년동기 대비 8.1% 감소한 66.8억 달러를 기록

○ **핀테크, 드론, 게임** 등 **4차 산업혁명** 관련 부문으로 투자분야가 **다변화**되고 있고,

○ 한국의 **우수한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를 활용**하기 위한 **물류업 투자도** 증가세

* 물류업(운수·창고): ('16.상) 1.2억 달러 → ('17.상) 2.8억 달러 (+134%)

[4차 산업혁명 관련 외투 다변화 사례]

- **(모바일결제, K사, 2.0억불)** 중국 기업이 한국 유력 핀테크 기업의 지분인수 추진
- **(드론제작, K사, 2백만불)** 드론 제작과 R&D사업 실시를 위해 중국 기업이 전북 익산에 공장을 증설하는 증액투자로 2021년까지 700만 달러 추가투자 예정
- **(게임개발, C사, 50만불)** 일본 게임 개발사가 세계 4위 규모의 한국의 게임시장에 추가 진출

4. 유형별 동향

□ **그린필드형 투자**는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세(+30.8%)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8.8% 증가한 78.9억 달러 기록

* ① 그린필드형·제조: 22.2억 달러(△12.7%), ② 그린필드형·서비스: 56.4억 달러(+30.8%)

□ **인수합병(M&A)형 투자**는 전년동기 대비 48.3%감소한 17.1억 달러로 제조업 부문은 크게 증가(+101.0%)하였으나, 금융·보험(△77.1%) 등 서비스업 부문은 감소세를 보임

* ① 인수합병(M&A)형·제조 : 6.1억불(+101.0%), ② M&A형·서비스 : 10.4억 달러(△64.8%)

5.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

□ **(향후 전망)**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(UNCTAD)는 국제 경기회복으로 올해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(FDI)가 약 5%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, 다만, 미국 **금리인상, 브렉시트 협상** 등 **불확실성**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

○ 따라서, 하반기 외국인투자에 대해 **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목표치인 200억불 이상 달성**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

□ **(정책 방향)**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의 장기적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한편,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

○ 첫째, 대통령 해외순방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**투자환경설명회, 라운드테이블**, 최고경영자(CEO) **개별 면담** 등 **투자유치활동**(IR)을 전개

○ 둘째, **주한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**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증액투자를 유도

○ 셋째, **외국인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제도를 전면 개편**

① 외국인투자 **3대 지원책**(조세·입지·현금지원)의 **지원기준**을 금액중심에서 **고용효과 중심**으로 **전면 개편**해 일자리 창출 유인을 제고

② 올해 10월로 예정된 **"외투기업 채용설명회"를 대폭 확대**하여,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우수 외투기업으로의 취업기회를 확대

* 참가기업을 전년대비 30% 이상 증가한 120여개 기업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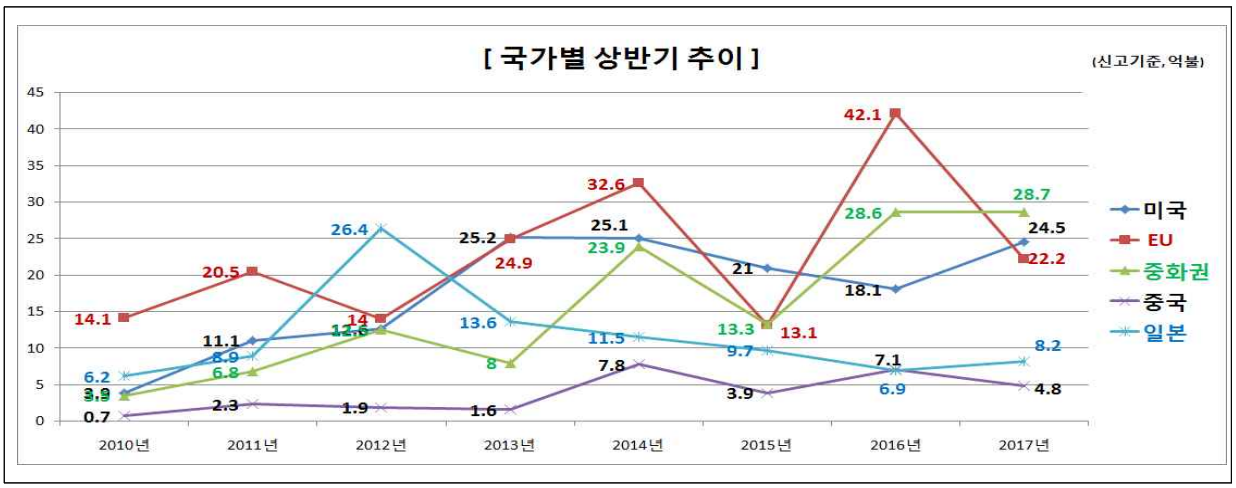
③ 분기별로 **고용창출 우수외투기업을 선정하여 포상**하는 제도 신설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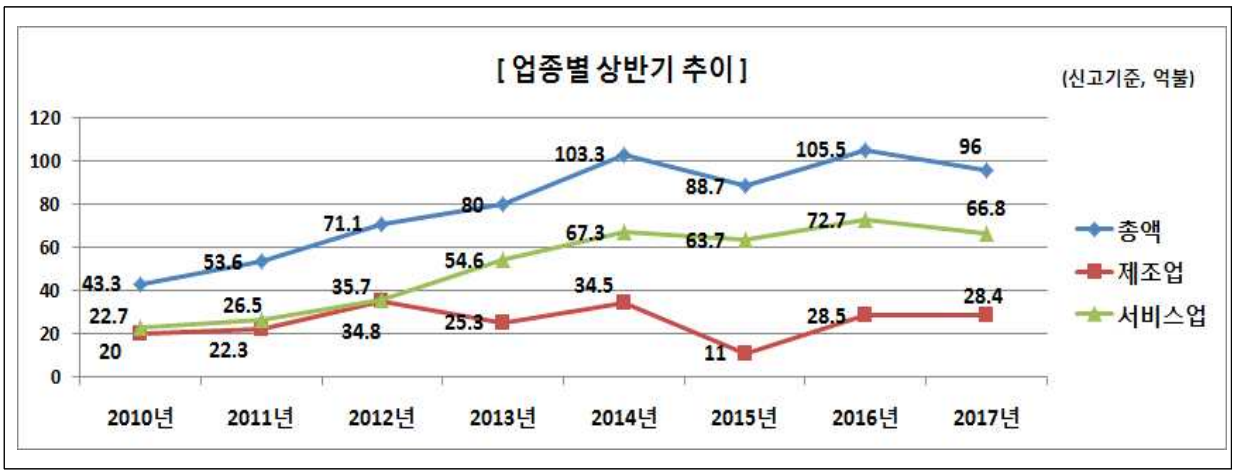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송상현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'17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추이

1 국가별 추이



2 업종별 추이



3 유형별 추이

